

# 미래 신산업 분야로 산업 생태계 대전환



제3일반산업단지(사진 왼쪽)와 제4일반산업단지 전경.



익산시가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로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정현을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는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제3산업단지 일반산업용지 완공에 이어 제3·4일반산업단지 분양률 90%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 기세를 이어갈 혁신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의 경쟁력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이번 혁신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의 내·외연 확장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조성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의 우수 인프라로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농생명 분야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민선7기 정현을 시장 취임 후  
지리적 장점 등 활용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으로  
제3산업단지 일반산업용지  
분양률 100% 달성 성과 거둬  
현재 제3·4일반산업단지  
여유율은 10.6%에 불과

2008년부터 농생명 분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키워  
미생물 분야에 적극 투자  
의·생명분야 연구개발 기반  
그린·레드바이오 인프라 융합  
전국 최대 바이오산업 거점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익산시는 전통적으로 섬유, 의약품제조업 자동차·농기계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지난 2008년부터는 농생명 분야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미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 구상 용역 관련 정현을 익산시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생물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린바이오는 생명 자원에 과학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캠퍼스가 완공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입주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어 250억원이 투입돼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와 유치 노력 중인 300억원 규모의 '동물용의약품시제품생산지원 플랫폼 구축'까지 완성도를 높이면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보건·의약 분야인 레드바이오 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대와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

는 점도 최대 장점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고 각 주체 간 역할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바이오산업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의·생명분야 연구개발기반과 그린·레드바이오 인프라가 융합되면 익산은 전국 최대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의 풍부한 자원과 경쟁력이 담긴 새로운 혁신산업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린·레드바이오 융합, 혁신성장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는 익산의 경쟁력인 '그린·레드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건립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산업 여건 분석, 최적 입지와 유치업종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된다.

산업은 약 330만㎡(약 100만평) 규모로 바이오와 벤처산업,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 도시형 산업, 친환경 업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입지가 가능한 후보지 3곳을 도출해 사업성, 토지가격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4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미래 구상이 담긴 익산 혁신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미래 신산업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가치사슬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익산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전망되는 바이오 융합산업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익산시민의 자력과 자신감으로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로 그린·레드바이오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 기회와 희망이 가득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기자

## ▲일반산업단지 완전 분양 임박, 이제는 익산의 미래 준비할 때

민선 7기 정현을 호 출범 이후 익산시는 지리적 장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으로 제3산업단지 일반산업용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3산업단은 지난 2017년 말까지 분양실적이 40%대로 저조했지만 익산시가 수요자 맞춤형 기업마케팅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기업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익산시의 공격적인 투자 유치 결과 제3·4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89.4%에 달하면서 현재 분양 여유율은 1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유치된 기업 가운데 화학, 의약품, 식품 등 제조업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산업에서 도시형 산업 중심으로 업종 재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앞으로 이진한 기업들의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익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시는 신산업을 특화한 혁신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정부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 성장 주력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계획이다.

## ▲'농생명·바이오 산업' 최적의 인프라 갖춘 익산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